

일주문



‘불교 수행...’ 주제 발표
법현 종단법 사무국장은 18~20일, 가평 바람과 물 연구소에서 ‘불교적 수행과 사회적 실천’ 주제발표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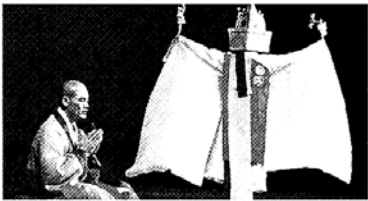
일경도불교대 객원연구원
김호성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는 인신년을 맞아 9월부터 1년간인 일경도불교대 객원연구원으로 머물 예정이다.

금강대 총장 박봉식 교수



현재총장 금강대학교
초대 총장에 내정된 박봉식 서울대 명예교수(71세·사진)는 26세때 서울대 최연소 교수로 임용되어 서울대 제17대 총장과 부산외국어대 2대 총장을 잇달아 역임할 만큼 학계와 교육계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원로 학자다. 다음은 박봉식 교수의 이력.
1951년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1957년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 석사
1975년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1958~1994년 서울대 교수
1964~66년 하바드대 연경학과 객원교수
1980~84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1985~87년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1985~87년 서울대 총장
1991~95년 통일원 민족통일연구원 이사장
1994~95년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법현스님 작곡 ‘가야’ 3위
16회 터키 국제무용제서



한국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법현스님(동국대 국악과 교수·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이 12일 터키 버사에서 열린 제16회 터키 국제무용제에서 불교전통음악과 무용을 접목한 ‘가야’로 3위에 입상했다.
이탈리아, 이집트, 러시아, 불가리아, 폴란드 등 18개국에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1위는 조지아, 2위는 멕시코가 수상했다.
수상작인 ‘가야’는 동국대 국악과 학생들과 법패이수자 스님 등 20여명이 출연해, 인도에서 가락곡으로 불교가 전파되는 과정을 법패와 무용으로 작곡한 것이다. 법현스님이 음악과 연주를, 김향규 교수(향원대 무용과)가 안무를 맡았다.

“의제개혁 폭넓은 공감대 필요”

조계종 의제 실무연구회 의장 종진 스님



“의제를 바꾸는 데는 무엇보다도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야 합니다. 따라서 스님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접근해나갈 것”

런 성과를 얻지 못한 것도 추진력 결여와 함께 ‘왜 필요한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승가 의제개혁은 꼭 필요합니다. 현재 대다수 법계위원들은 울장 정신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제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진스님은 울장에 정해진 대로 따르는 것이 승가의 본분이라는 말로 의제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했

시간 갖고 충분히 검토·논의

입니다.”

18일 발족한 조계종 의제실무연구회 의장을 맡은 종진스님(조계종 법계위원회 위원·사진)은 여론을 충분히 반영한 의제개혁을 해 나가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바뀐 제도를 수용해야 하는 스님들이 공감하지 않는 한 의제개혁 성공은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지난 몇 년간 의제개혁에 대한 몇 차례의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아무

다. 다만 제도를 만들고 이것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조급하고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제위원회 구성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종진스님은 “실무연구회 활동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한다면 의제 개혁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영우 기자 mwhan@buddhapa.com

“이론·수행 결부 ‘살아있는 불교’로”

‘불교학·實修’ 만남의 장 마련 해주 스님



해주스님은 “스스로 수행하며 실천하는 불교학자들이 늘어나 이론과 수행이 결부된 살아있는 불교학 풍토를 조성해 불교학 발전

“최근 위빠사나 등 간화선 전통과는 다른 수행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워크숍이 살아있는 불교 연구풍토를 확산시키고, 논리만 팽배해 있는 불교학계를 일신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13~14일 예산 수덕사에서 ‘명상과 불교수행’을 주제로 여름워크숍을 개최해 간화선, 위빠사나, 염불선 실수(實修)의 장을 마련한 불교학연구회 회장 해주스님(동국대 교수·사진)은 수행법의 체계화

수행 도외시하는 학계 변화 ‘기대’

및 이론화를 통해 불교학과 수행법이 불자들에게 쉽게 전해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해주스님은 “불교 수행법들이 서구 물질문명이 휩쓸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새로운 빛과 가능성으로 재인식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수행과는 동떨어진 연구만이 이뤄지다 보니, 대중들에게 소외되고 불교계를 이끄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은 물론, 수행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00년 5월 창립한 불교학연구회는 1998년 9월 한국종교학회 불교분과가 모체로 되어 출범한 토론중심의 열린 학회. 년 6회의 월례발표회와 2회의 정기발표회 그리고 년2회 1박2일의 워크숍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수덕사=김재경 기자

“군포교 새로운 비전 제시할 터”

‘군승회의’ 첫 의장 장성화 법사



조했다. 장 법사는 “120여명의 군승들은 군포교라는 길을 걷는 도반”이

“지난해 11월 군불교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구성된 군승회의의 첫 의장으로서 군승회의를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체계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5일 강원도 양양 호국총영사에서 열린 군승총회에서 군승회의 첫 의장으로 선출된 법승 장성화(47 중령·3군사령부·사진) 법사는 옛 군승단 체제를 빠른 시일내에 탈피해 체계 확립의 활동 계획을 밝혔다. 이번 의장 선출로

군종교구 같은 전담기구 필요

8개월여간 유지해 온 임시의장 체제를 정비, 원활한 군포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군포교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불사”임을 강조해온 장 법사는 군포교의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또 “조계종 포교원 산하의 군포교 전담기구로서 군불교위원회를 한차원 승격시킨 기구가 필요하다”며 군종교구와 같은 기구의 필요성을 강

라며 군승들이 군포교에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화합된 모습으로 현장에서 군포교에 입할 것을 군승들에게 주문했다.

군승 1471로 81년 입관, 2사단, 21사단 등 최전방에서 포교활동을 시작한 장 법사는 국방부, 5군단 등을 거쳐 현재 3군사령부 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개혁적인 성향을 지녔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박봉명 기자 bypark@buddhapa.com

“각국 청년조직 상호교류 중요”

세계 불교도 청년회의회 아누르트 봉바니 회장



“한국 사람들이 24시간 늘 문을 개방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대중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겠구나 싶었습

“불청대회를 보고 한국불교 청년조직이 살아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이런 조직들이 여러 나라 조직들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된다면 세계불교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조직들이 단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아누르트 봉바니 회장은, 한국불교의 포교활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드러냈다.

세계불교청년포럼 내년말 한국서

니다. 한국의 경제발전도 이런 기도와 정진 도량이 완충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13~14 양일간 속초에서 열린 전국불교청년대회 참석차 방한한 세계불교도청년회의회(W.F.B.Y., the World Fellowship of Buddhist Youth) 아누르트 봉바니(Anurudh Vongvanij·사진) 회장은 한국 사찰을 둘러보고 개방성에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불교가 활성화 되려면 승가와 재가, 매스미디어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이 중 불교 미디어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점을 심층 활용해 청년 포교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W.F.B.Y가 주최하는 ‘세계불교 청년포럼’이 내년 말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a.com



김성재 문화부장관 정대스님 예방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5일 김성재 신임 문화관광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종교계를 잘 아는 만큼 종교 정책을 통해 적극 협조해 달라”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월드컵 때 외국인 텀플스테이가 호응이 컸다”고 밝혔다. 정대스님은 16일에는 이한 동 전 총리의 예방을 받고 국정현안에 대한 환담을 나눴다.



신수회 통도사서 하계수련회

현대불교 신행수기 당사자들의 모임인 ‘신수회’ 회장 이영재 정기모임이 13일 울산 지선당과 통도사에서 열렸다. 김재화, 김승희, 허준오 씨 등 10여명이 참석한 이번 모임에서 신수회는 월 1회 신수회 소식지 발간과 인터넷 북다뉴스 신수회 카페 활동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포교와 신행 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금산사 본말사 신도 임원 재교육

조계종 금산사 및 선운사 본말사 신도임원 연수교육이 13~14일 금산사 보제루에서 열렸다. 42개 사찰 110명이 참석한 이번 연수회에서는 △21세기 재가불교 지도력 △효과적인 신도조직화 방안 △신도회 조직 운영관리 등의 강의를 들었다. 참가자들은 전 북지역 포교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결의했다.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현판식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공동대표 한정섭법사, 정대은스님, 김재일법사) 현판식이 19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동산불교회관에서 봉행됐다. 현판식에 이어 연합회는 운영이사 및 임원을 선임했다. △고문: 김무갑, 안경우, 박정암, △운영이사: 권백은, 석항공, 오상현, 노종문, 조재완, 허성현, 박지일, 이재복, 장각성, △고시위원회: 오상현, 김재일, 노종문.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2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인을 양성기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들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 21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Table with 2 columns: Year (1st/2nd year) and Course/Professor. Lists subjects like Buddhist Studies, Philosophy, and various professors.

3. 모집방법 및 전형

Table with 7 columns: Applicant, Eligibility, Application Fee, Admission Exam, Interview Method, Interview Location, and Remarks. Details the application process.

4. 입학일시 2002년 8월 10일(토) 오후5시(동산불교회관)

본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org
· 서울: 보리각(조계시일) 02)733-0333 · 부산: 불서보림사 051)246-4321 · 대구: 삼영불교서림 053)425-4097
· 대전: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불일서점 062)232-7542 · 제주: 예전수보리서점 064)743-4184
\* 특전사항 : · 상가과정을 졸업한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불교학과)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매일 아침 나무아미타불을 칭명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정토세계(淨土世界)를 열어 갑시다.

제 6차 전국 염불만일회 2002년도

망골마을 해남 미황사 여름 성지대회



매일 나무아미타불을 부릅시다 -

전국 염불만일회에서는 2000년부터 염불 10대성지를 찾아 금강산 건봉사, 전남 대원사, 설악산 백담사를 순례하였고 망골마을 해남 미황사 여름 성지대회를 마련합니다. 전국에 계신 염불만일회 회원과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일시: 2002년 8월 5일 - 7일(2박 3일)
장소: 전남 해남 망골마을 미황사
신청대상: 개인, 사찰, 단체, 가족단위
참가비: 40,000원(염불, 조끼, 교재 및 식사대금)
교통편: 개인별 미황사 5일 오후 2시까지 도착
신청방법: 전화 신청후 은행계좌 입금
국민은행: 023-21-0667-309; 염불만일회
농협: 053-02-128104; 염불만일회

청화큰스님 특별 염불법문



- (서울, 경기지역 출발안내)
출발장소: 서울 조계사 앞
출발시간: 2002년 8월 5일(일)오전 6시
교통편: 관방버스(단 동참자는 참가비, 교통비포함 65,000원을 미리접수 바랍니다)

全國念佛萬日會

110-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0
☎ 02)732-1215~7 / FAX 02)732-1207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